

# 최강창민, '파라다이스 목장' 주인공 발탁

입력 2009. 7. 28. 16:49 · 수정 2009. 7. 28. 16:51

---







삼화네트웍스-SM엔터테인먼트 공동 제작 드라마(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인기그룹 동방신기의 최강창민(21)이 드라마 '파라다이스 목장'의 주인공으로 발탁됐다.

'엄마가 뿔났다', '조강지처클럽'의 제작사 삼화네트웍스는 동방신기 등이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드라마 '파라다이스 목장'을 공동제작하기로 하고, 주인공으로 최강창민을 캐스팅했다고 28일 밝혔다.

'커피프린스 1호점'의 장현주 작가와 '태양속으로'의 서희정 작가가 공동으로 집필을 맡는 '파라다이스 목장'은 로맨틱 성장 멜로 드라마이며, 내달 말 제주도를 배경으로 촬영을 시작한다.

삼화네트웍스는 "밝고 경쾌한 스토리, 아름다운 음악이 조화된 멜로 대작으로, 연말 국내 방송을 시작으로 일본과 동남아 지역에도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retty@yna.co.kr < [실시간 뉴스가 당신의 손안으로..연합뉴스폰](#)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 (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